

태권도 도장경영에 있어 유아수련생들에 대한 교육현장 실태 보고

강은석(동아대학교 교수) · 문영재(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허승은**(울지대학교 교수)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으로 인해 태권도 도장경영의 수요층인 아동 청소년이 감소함에 따라 태권도 교육이 유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유아수련생들이 태권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기준 유아라 명하는 만 5세를 제외하고 만 3세부터 만4세 유아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의 정신적, 기술적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통해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들이 다수 교육받고 있는 두 곳의 도장에 참여관찰과 해석적 및 추론적 면담을 통해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참여관찰이 마무리된 후에는 Spradley의 DRS 기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재면담 과정에 참여관찰 결과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확인되었는데 첫째는, 유아수련생들의 특징으로서 입관동기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유아수련생들과 지도자로서 불분명한 훈계와 지도사이, 그리고 불분명한 놀이와 수련사이로 확인되었다. 셋째는, 유아수련생들의 교육으로서 교육이라 쓰고 보육이라 읽음과 교육방식 변화 필요성 인지와 현실의 어려움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수련층이 유아수련생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보육과 교육 사이에 고민하는 일선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주제어 : 유아수련생, 보육과 교육, 도장경영

* 이 논문은 2021년도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hurski@hanmail.net

I. 서 론

국내 태권도 도장경영 주 수요층이 아동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에서 그에 따른 도장 내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그리고 성장기에 도움이 되는 태권도 외적 운동들의 교육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도장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김우중, 김민지, 우민정, 2012; 박효주, 원유미, 2020; 정재환, 2008).

이와 동시에 태권도 도장경영 교육은 신체적으로 태권도 수련기술 향상과 함께 정신적인 성향을 도모함으로써 인성에 중점을 두고 수련을 지도하는 태권도 교육적 가치가 미래사회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다(권혁정, 2019; 임태희, 2015; 최공집, 박동수, 2014).

위와 같은 사실들은 사교육 시대를 반영하듯 언제부터인가 태권도 수련생들이 아동 청소년으로 국한되어 교육되었고(이광호, 최성배, 최성진, 2012), 이를 타파하고자 성인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김중수, 신호철, 2020; 김홍백, 한성진, 2009), 아동 청소년기에 태권도 수련이 주는 순기능과 장점들이 워낙 많아 이른바, 아동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신체적 필수교육처럼 여겨진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김영욱, 최지아, 오수학, 2018; 황승욱, 김상목, 김영식, 2017).

그러나 1998년 IMF이 후, 해를 거듭하며 국내 출산율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2018년 출산율은 <그림 1>과 같이 0.98명으로 급락하는 추세를 보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의 한 분야인 태권도 도장경영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주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두한, 2019).

이에 현재 태권도 도장들은 아동 청소년 수련생들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도장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권영기, 2017), 도장 간 경쟁은 갈수록 심해져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의 도장들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은 수련생 감소와 지도자 증가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반증

하는 현상이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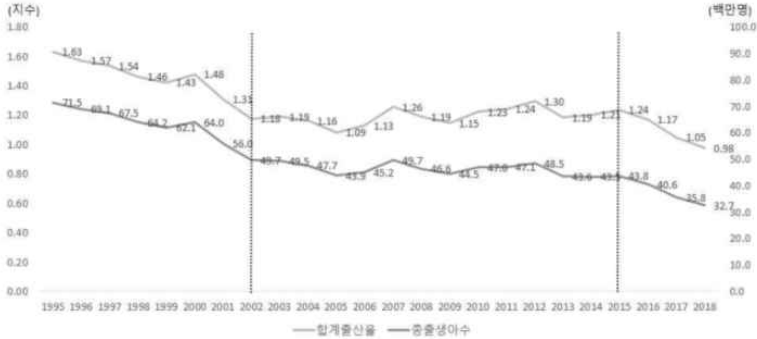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추이(통계청, 2020)

그리고 이러한 대안으로 청소년과 성인 수련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여의치 않은 준비와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하기에 선불리 수련생 연령층 확장을 위한 도전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태권도 교육 현장에선 아동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수련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이웅우, 2017; 최승식, 김현정, 2015), 수련층의 저연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동수련생과는 상이한 발달특성으로 인해 유아수련생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김충일(2016)은 유아 특성을 고려한 태권도 기술에 기본움직임기술을 접목하여 유아수련생들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김철용과 최관용(2020)은 유아수련생을 교육하는 지도자의 코칭교육 필요성을 교육과 운영으로 나누어 범주화 작업을 시도하고 아동수련생과 유아수련생의 수련방식과 접근방법이 다를 것을 나타내었다.

더불어 아동과 유아의 법적 기준은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거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김옥태, 유홍식, 2020), 사회학적으로 만 3세부터 만 6세를 유아로, 만 7세부터 만 12세를 아동으로 보는 견해가 뚜렷하다(최선미, 오재연, 김경란, 2019).

이처럼 연령과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유아수련생 특징은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유아 태권도 지도자 코칭교육을 위한 연구를 통해 유아수련생이 아동수련생과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현장에서 유아수련생들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을 통한 연구의 필요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연구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아수련생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유아수련생들과 지도자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유아수련생들의 태권도 교육에 내재된 현실은 어떠한지를 연구문제로 제시하고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은 유아태권도수련생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나타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태권도 교육의 신체기술능력과(김민지, 2012; 이동환, 2015), 정신함양능력(김성문, 이계산, 2017; 유종진, 2011), 그리고 운영측면이라는(박남희, 2018; 유영훈, 2010), 카테고리를 지정한 후, 태권도 도장이라는 현장에서 지도자들과 유아수련생들을 연구대상자로 명명하고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을 실시한 태권도 도장은 <표 1>과 같이 부산의 갑도장과 경기도 을도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된 현장은 총 수련생이 120명 이상, 유아수련생들이 다수 교육받고 있는 곳으로써 지도자들의 동의하에 라포트를 형성하고 본 연구자가 갑도장에서, 공동연구자가 을도장에서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유아연령은 만 3세부터 만 6세이지만, 본 연구에서 만 5세와 만 6세는 어느 정도 소통 및 수련수행 능력이 가능하다는 연구참여자들의 판단과 유아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선행논문들 다수가 만 5세에서 만 6세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김수성, 2018; 김충일, 2016), 신체적 정신적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이를 보이는(김미와, 2005), 만 3세부터 만 4세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선행연구들과 달리 연구대상의 특징에 차별성을 두어 본 연구의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현장과 연구대상자

연구현장	총 수련생	유아수련생 만 3세~4세(남 / 여)	지도자
갑 도장	120명	6명(5 / 1)	3명
을 도장	130명	4명(4 / 0)	3명

현장 참여관찰 기간은 본 연구 설계상 2020년 3월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부득이 연기해 오다 방역수칙 1단계로 접어든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김영천, 2006), 매주 3회씩 총 22회 현장에 방문하여 40분간 진행된 유아수련생 수업에서 본 연구대상자인 만 3세부터 만4세 유아수련생들만을 집중적으로 참여관찰에 임하였으며 관찰 중 나타난 모호한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는 참여관찰 보완의 면담을 시행하였다(강은석,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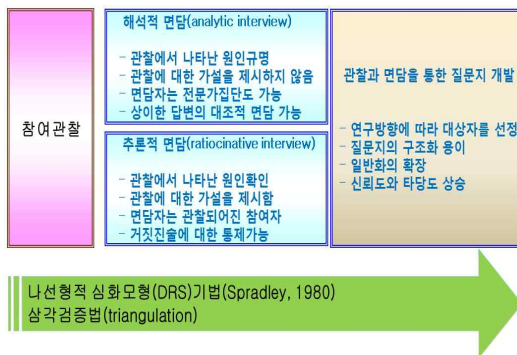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참여관찰 보완의 면담(강은석, 2015)

본 연구 참여관찰에서 적용된 면담기법은 <그림 2>와 같이 두 가지로, 하나는 유아수련생들에 대한 행위나 행동에 대해 원인구명을 요구하는 해석적 면담으로 지도자들에게 실시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행위나 행동에 대해 원인을 확인하는 추론적 면담을 실시하여 거짓진술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유아수련생들에게 활용하였다.

표 2. 본 연구의 참여자

성명	도장명	나이 / 성	경력	직급	도장위치
A	갑 도장	44 / 남	5	관장	부산 강서구
B	갑 도장	27 / 남	5	사범	부산 강서구
C	을 도장	41 / 남	12	관장	경기 화성시
D	을 도장	30 / 여	6	사범	경기 화성시
E	병 도장	45 / 남	17	관장	수원 영통구
F	정 도장	51 / 남	20	관장	서울 관악구

또한 두 달간의 참여관찰과 보완의 면담을 통해 현장 텍스트를 연구텍스트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 행위와 행동에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의 한계를 제거하고자 2021년 1월 <표 2>와 같이 본 연구자와 라포르가 형성되어 진실된 제보가 용이한 이들에게 동의를 얻고 참여관찰 접근방법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문제를 개별적이고 반복적인 구조적 면담과 대조적 면담으로 해소하였다.

이에 구조적 면담과 대조적 면담은 연구참여자들과 화상전화를 사용하여 참여관찰과 보완의 면담에서 정리된 결과물을 토대로 유아수련생들의 특징, 지도자와의 관계 그리고 교육전반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구조화하여 면담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중 상이한 면담제보에 대해서는 대조적 면담을 통해 관점 시각 확장이라는 의미 속에서 결과를 드러내고자 하였다(Spradley, 1980).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본 연구 현장과 같이 현재 태권도 도장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만 3세부터 만4세 유아수련생들을 교육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자료의 진실성과 평가작업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고 본 연구 참여관찰 현장에 지도자이자 연구대상자인 A, B, C, D를 다시 본 연구의 참여자로 재선정하여 일종의 반성적 메타면담을 실시하였다(강은석, 2008; 조용환, 1999).

그리고 본 연구방법을 통해 코드생성과 자료분류를 거쳐(Lincoln & Guba, 1985), 정리된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는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 상위주제와 하위주제

상위주제	하위주제
유아수련생들의 특징	도장 입관 동기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유아수련생들과 지도자	불분명한 훈계와 지도 사이 불분명한 놀이와 수련 사이
유아수련생들의 교육	교육이라 쓰고 보육이라 읽음 교육방식 변화 필요성 인지와 현실의 어려움

Ⅲ. 연구결과

1. 유아수련생들의 특징

유아태권도수련생들의 특징에 있어 이들의 도장 입관 동기는 아동수련생과는 다소 다르게 맞벌이 부모의 보육시간 부족 해결과 신체적 정신적 발달문제 도움을 위해 입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김찬우와 김인 그리고 백종수의

(2010)의 초등학교 수련생 학부모들이 태권도 도장에 대한 교육적 기대 요인이 대표적으로 수련생 요인과 지도자 요인 그리고 도장의 시설과 환경요인이라는 연구결과에서 보이듯 본 연구대상자들의 입관동기가 아동수련생들과 상이하단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아동수련생 학부모의 경우, 교육적 기대 관점에서 태권도 도장을 탐색하는 반면, 만 3세부터 만4세 유아태권도 수련생 학부모는 교육적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입관 동기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맞벌이 부모의 보육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태권도 도장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태권도 교육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주는 순기능을 고려하기보단 궁여지책으로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이왕이면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지배적이다.

만 3세와 만4세 유아수련생들 학부모가 도장을 찾는 이유는 교육 우선이 절대 아니다. 학부모들도 알고 있어요 저 나이에 태권도를 제대로 못 배운다는 사실을... (C)

그리고 또 다른 입관 동기로는 아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달문제로 인해 도움을 받고자 선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으로 첫째, 발달장애 유아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 차원으로 태권도 도장을 선택하였다고 여겨지며 이는 조경희(2010)의 발달장애 유아를 둔 부모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정도가 매우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둘째, 송호준과 옥정달(2014)의 연구에서 도출된 발달장애 유아의 신체활동 교육이 발달장애 중재 및 성장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태권도 도장 입관 동기가 부모의 보육스트레스 감소와 유아수련생의 발달 및 정서 도움이라는 일석이조 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추양원과 송상훈(2012)이 연구한 ‘태권도 수련이 지적장애 아동의 신체 구성 및 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 과 이평원(2014)의 ‘태권도 수련이

발달성 협응장애 아동의 기초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태권도 수련이 체지방조절, 근지구력 및 전신지구력 향상, 유연성 및 순발력 향상 등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어 태권도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아수련생 학부모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포지셔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수련생들의 특징에 있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부모들의 무리한 부탁과 통제되지 않는 각기 다른 성향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먼저 부모들의 무리한 부탁 사례로는 음식을 먹여 달라는 부탁, 도복을 갈아입혀 달라는 부탁, 끝나면 전화를 달라는 부탁, 혼내지 말라는 부탁 등, 다양한 사례들이 부탁보다는 요구에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만 3세로 보이는 남자 유아수련생이 수업 중 갑자기 도복 안에다 소변을 보았다. 순간 B는 다른 유아수련생들을 한쪽으로 불러 모았고 상담을 하시던 여자 실장님이 아이의 바지를 벗겨 수건으로 닦아내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여벌로 드린 속옷과 바지로 갈아입혀달라는 부탁과 도복을 물로 행귀서 비닐봉지에 넣어 달라고 하였다. (갑도장 참여관찰 중)

본 연구의 참여자 B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연출될 때마다 항상 난감하다고 하였으며 수업준비와 교구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부탁들이 축적될 때 수업진행 우선이 아니라 학부모 부탁 우선이 된다고 제보하였다.

이에 김하영과 김두한(2018)은 사범지도자와 학부모의 관계 탐색 연구에서 학부모들 요구에 따른 사범지도자의 상황을 협력, 공유, 대치, 무관심 이상의 네 가지 유형과 사범지도자의 전략을 공생, 협조, 회피, 일방적 제공 이상의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진 현상은 상황적인 측면에서 협력에 가까워 보였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협조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철저하게 지도자인 관장과 사범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도출된 결과이기에 본 연구의 관찰에서 나타난 학부모의 관점은 고객센터 차원에서 공유와 일방적 제공이라고 여겨지며 태권도를 교육하는 지도자라기보다

태권도 도장을 경영하는 운영자로 바라보는 시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수련생들은 통제되지 않는 각기 다른 성향으로 인해 아동수련생들 대상의 교육보다 배로 힘들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만 5세부터 만 6세는 유아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되지만 만 3세부터 만 4세는 말을 이해하거나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건 하나의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 각자 다른 생각,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통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A)

본 연구의 참여관찰에서 보인 사례로 만 3세와 만4세 유아수련생 4명은 지도자가 앞차기라는 기술적 교육을 가르칠 때 한 명은 창가 쪽으로 가고 한 명은 도복의 띠를 풀고 있었으며 한 명은 다른 한 명과 수업과 상관없는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의거, 유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인과 다르게 개월 수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 기량에 큰 차이를 보이며 동일한 만 3세라 할지라도 개월수가 36개월인 유아와 40개월인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달리해야 한다는 이용주와 김정희(2016)의 연구결과와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통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태권도 도장에서 유아반을 개설하여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개월 수에 따른 특성과 성향을 인지하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료되었다.

무엇보다 만 3세나 만4세 유아수련생들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명의 지도자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수련생들에게 위험하지 않은 기 자체가 어린 수련생들에게는 잠재된 위험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요. (F)

동시에 유아수련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때는 각기 다른 성향과 행동에 따른 통제의 어려움이 있기에 안전관리를 우선하여 기자재 활용과 학습도구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박영만(2020)과 강정태와 김병태 그리고 박수현

(2018)의 연구는 유아수련생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유아수련생들 특징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가져다주었으며 강은석과 신중달(2016)은 태권도 도장 안전관리에 있어 지도자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인 만 3세와 만4세 유아수련생들의 특징, 특성, 성향을 골고루 파악한 후 교육을 진행하는 이른바 예방과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유아수련생들과 지도자

아동청소년수련생들과 지도자는 교육에 있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로 나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인 유아수련생들과 지도자는 돌봐주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의 관계도 형성되어 있어 태권도를 교육하는 과정 중에 불분명한 훈계와 지도사이 그리고 불분명한 놀이와 수련사이가 반복적이고 빈번하게 나타나 소통문제에서 기인한 가르침과 돌봄의 기준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였다.

D가 유아수련생들에게 수업 중 물을 먹으러 가지 말라고 지도하였는데 한 유아수련생이 허락도 없이 물을 먹으러 가니까 다른 유아수련생들 두 명도 뒤따라 물을 먹으러 가면서 수업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D는 물을 먹고 온 세 명의 유아수련생들에게 수업 중 물을 먹으러 가지 말고 수업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먹어야 한다며 훈계를 하였다. (을도장 참여관찰 중)

불분명한 훈계와 지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는 태권도 교육에 있어 수련생들에게 좋은 습관이나 태도를 기르도록 이끄는 일과 더불어 수련 활동을 이끄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위의 참여관찰과 같이 수업 전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어긴 반복된 행위와 행동으로 인해 잘못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주의를 시키는 훈계로 변하게 되는 상황이 수업 전반에 걸쳐 연출된 것이다.

그리고 수업 전개 과정에서 반복될 경우, 어디까지 지도이고 어디까지 훈

계인지 가늠하기 난해한 상황에 이르고 이른바 잔소리꾼으로 지도자는 변하게 된다고 연구참여자 E는 제보하였다.

이에 고희선과 최은아(2016)는 유아들이 한 번의 지도로 본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반복된 지도로써 부정적 기억 상쇄와 약속된 함의를 몸으로 습득하고 거듭된 인지능력을 통해 성숙해진다고 하여 지도자는 한 번의 지도와 한 번의 훈계가 아닌 수십 번의 지도로써 태권도 교육에 임하고 훈계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소진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태권도 신체활동 과정에서 훈계와 지적은 유아수련생들에게 자아존중감과 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와(최승식, 김현정, 2015), 언성을 높이지 않고 우는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접촉해주기, 무한칭찬하기 등은 지도자가 유아수련생들에게 해줘야 하는 필수행동이라는 결과로(김철용, 최관용, 2020), 태권도 지도자가 교육현장에서 훈계에 관한 언어적, 행동적 행위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불분명한 놀이와 수련사이에는 본 연구의 현장에서 수업전반에 걸쳐 일어나기보다 태권도 기술습득과정에서 여러 번 나타났다.

이에 김충일(2016)은 태권도 수련의 기본움직임기술이 유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유아의 신체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도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기본움직임기술을 위한 과정은 스포츠나 게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만 3세와 만 4세는 만 5세와 만 6세보다 신체적 역량과 정신적 수준이 낮기에 본 연구 교육현장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는 이번 시간에 ‘풍선을 발로 차서 누가 더 높이 올리나’를 실시하였다. 이런 놀이는 발차기 교육의 하나로 앞차기 또는 뺄어올리기 향상을 위한 수련인데 시작한 지 1분도 안 되어 한 유아수련생이 풍선을 가슴에 대고 터트리려는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유아수련생은 상대방의 풍선을 빼앗고 있었다. (을도장 참여관찰 중)

연구자: 풍선을 가슴에 대고 누르니까 기분이 어때?

수련생: 몰라요.

연구자: 친구가 가지고 있는 풍선이 더 좋으니?

수련생: 예, 제 것보다 더 커요. (올도장 참여관찰 후 추론적 면담)

참여관찰을 통한 추론적 면담에서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놀이형식의 수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구로 사용된 풍선에 집착하여 수련의 도구를 놀이의 도구로 인식하여 사용하였으며 ‘몰라요’라는 대답은 지도자의 수련과정을 망각한 행위로 드러났다.

대다수 태권도 도장은 아동수련생과 유아수련생 교육에 있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놀이형태의 활동성 교육을 기반으로 수련에 임하고 있으며(권영기, 2017), 김볼, 콘, 종이컵 등을 활용한 수련 향상 목적에 놀이를 혼합하여 창의적인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김철용, 최관용, 2020).

하지만 만 3세와 만 4세는 놀이기반 수련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수련이지만 전개는 놀이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었으며 지도자는 수업주도권을 양보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만약 수련보다 놀이에 치우친 교육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놀이를 주로 했던 유아수련생들이 성장하며 무겁고 엄한 태권도 교육의 부분 즉, 기술적인 측면에 강요된 반복학습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교육차원의 훈계, 그리고 그에 따라 지도자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인식은 태권도 교육에 적응을 못 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태권도 교육을 그만둘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 잠재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장에 만 3세 아이가 입관하였는데 교육이 안 되니 그냥 놀아줬거든요? 그 당시 저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몰랐던 시절이고…. 만 5세 되니까 관장님이 무섭다고 안 한다고 퇴관하였습니다. (F)

연구참여자 F의 제보는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제대로 가르칠수록 퇴관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학적 사건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아수련생들에게 수련이 놀이가 아니라 놀이 속에 수련이라는 인식과 그 수련을 통해 체력향상, 사회성 함양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언어와 문장을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유아수련생들의 교육

유아수련생들의 교육에 있어 이용우(2017)는 태권도 본질적 가치와 교육에 대해 지도자의 갈등이 아동수련생보다 훨씬 크며 그에 따르는 극복과정으로 태권도로써 접근보다 유아체육으로써 접근을 통해 도장 운영방식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장에서는 분류된 코드에 따른 결과제시가 아닌 결과의 총체적 관점에서 교육과 보육의 딜레마를 밖으로 드러내는 작업으로 ‘교육이라고 쓰고 보육이라 읽음’과 교육과 운영 사이에 보인 괴리감을 사례로 표현한 ‘교육방식 변화 필요성 인지와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하위주제로 나타내었다.

먼저 교육이라 쓰고 보육이라 읽는다는 하위주제는 본 연구를 진행하며 참여관찰과 보완의 면담, 그리고 구조적이고 대조적 면담 과정에서 논제는 교육인데 논제를 풀다 보면 보육에 가까운 해석이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여 현재 만 3세와 만4세 유아수련생 대상의 태권도 교육현장은 안타깝게도 교육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육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만 3세나 만4세 학부모들의 입관 상담에서 ‘태권도 잘 가르쳐주세요’, ‘승품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부탁 합니다’ 입니다. 잘 부탁 한다는 말속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핵심은 교육의 개념이 아닌 보육의 개념으로 ‘그냥 잘 돌봐달라’라는 의미이거든요. (C)

고민경, 권건일(2007)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해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아의 연령 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 보육의 비율을 달리하고 시대적 요청에 의거, 유아의 교육과 보육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태권도가 교육현장에서 체육의 한 종목으로 접근되어 유아체육 개념 틀에서 연령에 맞춘 보육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연구참여자 A와 E는 유아수련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태권도 교육의 시각이 아동수련생 학부모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고(김하영, 김석산, 2020), 태권도 도장은 즐겁게 활동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제보하며 보육의 관점에서 여성 지도자 필요성은 유아수련생 학부모 입장으로 볼 때 입관의 필수조건으로 나타났다.

한번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여아 수련생을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도장에 항의 전화를 해서 줄지에 유아성추행범으로 몰렸던 경우가... (B)

보육의 범위를 사회적 현상으로 정의하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를 그 범위라 할 수 있는데 태권도 도장이라는 공간만 다를 뿐 유아수련생들을 가르치는 태권도 지도자는 교육자이지만 보육자 역할을 필수로 해야 하는 의무가 동반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방식 변화 필요성 인지와 현실의 어려움의 하위주제는 교육과 운영 사이에 보인 괴리감을 중심으로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만 3세는 거의 수업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며 즐겁게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유아수련생과 부모는 만족해 하니까. (D)

먼저 유아수련생들의 교육현실은 한마디로 정신적 교육과 기술적 교육의 현실이 아동수련생만큼 실현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었으나 반복된 교육의 의

미 속에 놀이를 교육적으로 형상화하고 태권도 교육이 줄 수 있는 가치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교육환경에 맞춘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김충일, 2016; 유영훈, 2010), 교육 수단의 처지에서 다소 원활한 수련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적은 수요층인 유아수련생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의 소진이 아동수련생 프로그램 진행 중심인 교육현장에서 자칫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즘 유아수련생이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유아전용반을 개설한 태권도 도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3세와 만 4세를 독립적으로 반을 개설하기엔 인프라나 시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F)

불과 십 년 전만 해도 유아수련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들이 제법 있었지만 아동수련생들과 수련을 같이 하다 보니 능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 수련생들이 퇴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적지 않으며(유동현, 최천, 윤정옥, 2014), 유아수련생 역시 아동수련생에 초점을 맞춘 교육에 수련과정이 힘들고 흥미를 잃어 중도 포기하는 문제점도 연출되기에 태권도 도장 운영측면에서 수련생 이탈은 교육과 경영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파급을 야기시킬 수 있고 교육현장에서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에 김철용, 최관용(2020)은 유아수련생이 수련환경에 민감하고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원이 소수라 할지라도 유아반을 개설하여 확대 운영되어야 하며 지도자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였지만 연구 대상이 만 5세와 만 6세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대상인 만 3세와 만 4세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권영기(2017)는 유아를 전용으로 교육하는 태권도 도장들이 하나, 둘 개관하지만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 연령을 하나의 반으로 개설하다 보니 콘텐츠 부족과 연령 별 이해수준의 차이로 교육 할 수 있는 내용의 수가 한

정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수요가 낮은 유아수련생들을 연령 별로 분반하여 교육을 시도해야 해야 하는 필요에서 운영의 어려움은 잠재되어 있었다.

정리하면, 태권도 도장에서 만 3세와 만 4세 대상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은 수요층 적음으로 인해 시간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유아수련생의 증가를 예측하고 유아수련반 또는 유아전용반 개설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과 놀이 및 보육이 통합된 교육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연령 별 체격, 체력, 이해도, 사회성 등의 편차로 만 3세부터 만 6세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닌 만 3세와 만 4세, 그리고 만 5세와 만 6세로 나뉘어진 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본 연구 면담과정을 분석하며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핵심사항으로 태권도 교육현장에 만 3세와 만 4세 유아수련생들이 수련의 집중도와 즐거움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 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도자의 교육과 보육의 이해, 그리고 기자재 활용은 차선순위라 제시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태권도 도장경영의 주 고객인 아동 청소년이 감소함에 따라 태권도 교육이 유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유아수련생들이 태권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법적기준 유아라 명하는 만 5세와 만 6세를 제외하고 만 3세와 만4세 유아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의 정신적, 기술적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현장을 통해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들이 다수 교육받고 있는 두 곳의 도장에 참여관찰과 해석적 및 추론적 면담을 통해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참여관찰이

마무리된 후에는 Spradley의 DRS와 반성적 메타면담기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제면담 과정에 참여관찰 결과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확인되었는데 첫째는, 유아수련생들의 특징으로서 입관동기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유아수련생들과 지도자로서 불분명한 훈계와 지도사이, 그리고 불분명한 놀이와 수련사이로 확인되었다.

셋째는, 유아수련생들의 교육으로서 교육이라 쓰고 보육이라 읽음과 교육 방식 변화 필요성 인지와 현실의 어려움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태권도 도장경영에 있어 유아수련생들에 대한 교육현장 실태 보고를 아래와 같이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만 3세와 만4세 유아수련생들의 태권도 교육은 만 5세와 만6세 유아수련생들과 교육적 접근방법 및 방식이 달라야 함을 확인한바, 이해력과 기술적인 면에서 지도자의 관심과 애정이 높아야지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만 3세와 만4세 유아수련생 학부모들은 승급 및 승단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만 3세와 만4세 유아수련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자들의 전반적인 시각과 관점은 관장과 사범사이에서 확연히 드러났는데 관장은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고 사범은 그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수업 중 결손이나 교육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셋째, 보육의 틀에서 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태권도 도장은 교육의 틀에서 보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보육과 교육이 가능한 여자사범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한 제언으로 첫째, 만 3세와 만4세 유아수련생의 증가는 점진적으로 예상되는데, 기존에 선행된 유아태권도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고 현실적인 프로그램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만 3세와 만4세 유아수련생들에 대한 이해와 교육수행은 체육학과 유아교육학 분야를 접목하여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의 융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아수련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논문이 아동수련생 중심 연구에 비해 현저히 적기에 차 후 유아수련생 증가에 따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태권도 교육이 유아수련생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보육과 교육사이에 고민하는 일선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태, 김병태, 박수현(2018). 태권도장 안전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분석. **세계태권도문화학회**, 9(4), 113-124.
- 강은석(2008).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한 태권도 전공자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강은석(2015). 질적연구에 있어 체육활동현장의 참여관찰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24(4), 49-62.
- 강은석, 신중달(2016). 태권도 도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고사례와 문제점. **한국체육과학회지**, 25(3), 161-175.
- 고민경, 권건일(2007).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안 고찰. **유아교육 보육복지연구**, 11(3), 49-79.
- 고희선, 최은아(2016). 유아교사의 부적응 유아지도에 대한 SWOT 요인 및 요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8), 297-323.
- 권영기(2017). **태권도장 ‘유아전용반’ 큰 인기, 대체 뭐가 달라야?** 서울: 무카스 미디어.
- 권혁정(2019). 태권도에서 인성의 덕목 구현과 의미: 지 정 의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헌회**, 17(1), 723-732.
- 김두한(2019). 성과지향적 콘텐츠에 기반한 태권도장의 품질변화 예측에 따른 경

- 영전략. **스포츠사이언스**, 37(1), 197-205.
- 김미화(2005).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민지(2012). **태권도 중심의 신체활동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울산: 울산대학교 대학원.
- 김성문, 이계산(2017). 태권도 수련생의 심리적 가치, 염치 및 인성발달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19(3), 59-71.
- 김수성(2018). **태권도장 승급심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김영옥, 최지아, 오수학(2018). 태권도 수련이 신체조성과 체력에 미치는 효과의 메타분석. **국기원 태권도 연구**, 9(3), 97-113.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1**. 서울: 문음사.
- 김옥태, 유홍식(2020). **아동 청소년과 미디어**.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우중, 김민지, 우민정(2012). 미취학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에 대한 태권도 중심 신체활동 중재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1(5), 709-719.
- 김중수, 신호철(2020). 태권도 수련 활성화를 위한 재미요인 탐색: 성인 수련생을 중심으로. **코칭능력개발지**, 22(4), 90-99.
- 김찬우, 김인, 백중수(2010). 태권도 수련장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적 기대 요인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3), 79-93.
- 김철용, 최관용(2020). 유아 태권도 지도자의 코칭교육 요인 탐색. **대한무도학회지**, 22(3), 101-131.
- 김충일(2016). 기본움직임기술 중심의 유아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 및 내용 타당도 검증. **국기원 태권도 연구**, 7(3호), 167-189.
- 김하영, 김두한(2018). 사범지도자와 학부모의 관계 탐색을 통한 태권도장 경영 활성화 방안. **한국스포츠학회**, 16(4), 167-174.
- 김하영, 김석산(2020). 학부모들의 태권도장 선호요인을 통한 교육 및 경영방안 모색. **무예연구**, 14(1), 123-142.
- 김홍백, 한성진(2009). 성인들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 691-701.

- 박남희(2018). **일선 태권도장 교육과정에 따른 지도자 교수활동 내용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 경기대학교 대학원.
- 박영만(2020). 태권도장 지도자의 안전관리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융합과 통섭**, 3(3), 22-41.
- 박효주, 원유미(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태권도장 관련 연구동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9(6), 111-121.
- 송호준, 옥정달(2014). 발달장애유아의 신체활동교육 실태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통합 및 장애인담당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1), 179-198.
- 유동현, 최천, 윤정옥(2014). 태권도장 유소년 수련층의 퇴관이유에 관한 참여관찰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3(3), 163-172.
- 유영훈(2010). **태권도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유아태권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 용인대학교 태권도 대학원.
- 유종진(2011). **유아의 태권도 참가수준과 감성지능 및 사회성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광호, 최성배, 최성진(2012). 태권도 지도자의 아동 교육에 대한 현실인식.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4), 245-260.
- 이동환(2015). 유아태권도 참가자의 참가기간에 따른 감성지능과 사회성 간의 조절효과. **한국체육과학회지**, 24(6), 153-171.
- 이용우(2017). **유아 태권도 지도자의 교육적 가치 갈등과 극복과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이용주, 김정희(2016). 유아교사의 담당 학급특성에 따른 3-5세 연령 별 누리과정의 실행 분석: 다문화학급, 일반학급, 통합학급, 혼합학급의 차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0(6), 211-233.
- 이평원(2014). 태권도 수련이 발달성 협응장애 아동의 기초체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국기원 태권도 연구**, 5(1), 139-158.
- 임태희(2015). 태권도인성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수련 효과. **국기원 태권도 연구**, 6(1), 71-95.
- 정재환(2008). 태권도 승품(단)자 감소원인과 대안찾기.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

학회지, 16(4), 203-214.

조경희(2010). 발달장애유아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2), 97-111.

조용환(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최공집, 박동수(2014). 태권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효과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9(2), 105-116.

최선미, 오재연, 김경란(2019). 아동복지법에 기반한 문제상황활동이 유아의 안전 능력에 미치는 변화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4(2), 103-134.

최승식, 김현정(2015). 태권도 중심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2), 261-282.

추양원, 송상훈(2012). 태권도 수련이 지적장애아동의 신체구성 및 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 **국기원 태권도 연구**, 3(2), 55-73.

통계청(2020). **국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추이**. 서울: 통계청.

황승욱, 김상목, 김영식(2017). 태권도 수련이 초,중등학생의 체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대한무도학회지**, 19(4), 149-163.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 CA: Sage.

Spradley, J. P.(1980).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Field of Education of Early Childhood Trainees in Taekwondo Management

Kang, Eun-Suk(Dong-A Univ.) · Moon, Young-Jae(Kyung-Hee Univ.)

· Hur, Seung-Eun(Eul-Ji Univ.)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early childhood trainees will be able to receive taekwondo education properly at a time when taekwondo education is expanding to early childhoods as low birth rates have reduced the numbe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in demand for taekwondo.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check the status of Taekwondo's mental and technical education for children aged 3 to 4 years old, except for those aged 5 who are called early childhood by legal standards. The research method was intended to show results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s and interpretive and reasoning interviews with leaders, and after the participation observation was completed, the participation observation results were improved with Spradly's DRS technique. The findings were largely identified in three broad categories. First, it was seen as a characteristic of early childhood trainees, which was the motivation for admission and the phenomenon that took place in the field. Second, it has been identified as unclear discipline and guidance as early childhood trainees and leaders, and unclear play and training. Third, as an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trainees, it is written as education and read as child care. Recognize the need for changes in education methods. However, the reality showed difficulties. Therefore,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 useful reference for front-line leaders who are agonizing between childcare and education at a time when early childhood trainees are expanded.

Key words: Early childhood trainee, Care and education, Taekwondo management

논문투고일 : 2021.03.30.

심 사 일 : 2021.04.10.

심사완료일 : 2021.04.30.